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음 4월 24일) 제180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대은 전북축구협회장, 자원봉사자들이 18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FIFA U-20 월드컵' 전주 개막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주시, FIFA U-20월드컵 준비 '이상 無'

“역사에 남을 문화월드컵 치를 것”

김승수 전주시장 “시민 참여” 당부... 시, 편의시설 확충 등 마쳐
관광객 사로잡기 위해 대회기간 전통문화행사·K-POP 공연 등 마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 전주시가 오는 20일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준비를 모두 마친 가운데,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대은 전북축구협회장, FIFA U-20월드컵 자원봉사자들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곧 전주에서 개막하는 이번 U-20월드컵이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각인시킬 성공적인 문화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이번 U-20 월드컵은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회기간 동안 세계축구팬들과 외신

들의 관심이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로 집중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내, 전주의 진정한 모습이 전 세계인들에게 전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완벽한 준비를 마친 U-20월드컵 개막전은 전주시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오기 힘든 천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전주시민들과 함께 역사와 전통문화, 시민들의 축구열기가 살아있는 문화월드컵을 만들어, 전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무대에 당당히 올려놓겠다”고 덧붙였다.
FIFA U-20 월드컵은 미래 축구 스타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대회로, 전주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축구 중가 잉글랜드, 대회최다 우승팀인 아르헨티나가 맞붙는 빅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세계축구팬들과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회 첫날 개막전 티켓 예매율은 현재 94%를 넘어서, 현장구매분을 감안하면 전 좌석 매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내기 위해 총 120억원을 투입해 전주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와 전광판, 조명·음향시설 등 시설을 모두 정비하고, 약 4개월 동안의 교육을 거쳐 경기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211명(12개 분야)도 선발했다.
또, 경기장을 찾는 국·내외 축구팬들의 편리한 경기 관람을 위해 시내버스 특별노선(1994번) 확충 △셔틀버스 운행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정비 △임시 주차장 확보 등 수송·교통대책도 완벽히 준비했으며, 군·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전대비 테러 대비 실전 훈련도 수차례 진행하는 등

선수단과 관람객 안전대책도 꼼꼼히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과 음식, 가로환경정비, 관광, 청소 등 서비스 분야도 세밀하게 점검했다. 여기에, 전주를 찾는 각국 선수단의 힘을 북돋아줄 한복응원단과 응원사포터즈도 이색적인 응원전 준비로 분주하다.
나아가, 시는 이번 대회를 문화월드컵으로 만들기 위해 대회기간 전주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전통문화행사와 K-POP 공연, 축제 등을 마련해 경기 관람을 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U-20 월드컵은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월드컵으로서, 전주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스포츠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우리들의 축제라는 마음으로 함께 즐기고 참여하여 최고의 월드컵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5·18 기념식 성료

유가족들 “9년만에 제대로 치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낙인찍혔던
‘임을 위한 행진곡’ 울해부터 제창
문재인 대통령 통합 행보에 ‘감동’

“9년 만에 제대로 된 5·18 기념식을 치르네요”
18일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열린 광주 북구 운정동 5·18국립민주묘지에서 만난 5월 단체 관계자들과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분열의 노래’로 낙인 찍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인 올해 기념식부터 제창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행보로 국민이 오월 열사의 뜻을 계승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3면〉
기념식은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로 유가족과 단체가 불참한 반쪽 행사로 치러졌었다.
기념식 참석 직전부터 제창 소식에 눈시울을 붉히던 우봉용 열사 아내 최중순(72·여)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라며 “이제야 제대로 된 기념식이 치러진다. 5월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고,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수춘 열사의 아내 윤삼례(74·여)씨는 “지난 보수정권에 서는 노래를 못 불러 문 앞에 앉아 울었다. 앞으로는 기념식에서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군부 독재 정권의 탄압에 저항하고, 시대의 억압이 있는 곳에서 불리던 노래”라며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닌 함께 부르는 노래’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서도 5·18 공약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길 바란다”며 “진상도 제대로 규명해 5·18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명식 5·18 기념재단 이사장도 “이번 기념식을 통해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을 받았다”며 “국민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도, 공직윤리 행정 ‘결실’

3년 연속 최우수 선정
전북도 공직윤리 행정이 명실공히 전국 최고임을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18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포장을 받게 됐다. 특히 3년 연속 전국 1등으로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전북도가 공직윤리 운영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 받은 것이다.
운영 실태평가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을 평가해 제도개선과 우수사례 발굴, 전파를 목적으로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28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기재산 변동신고 관련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

매일 INDEX
2면 - 지역경제 활성화 다짐 3면 - 이영렬·안태근 사의 표명 4면 - 무직뱅크 공연 1만원에 앉겨? 6면 - 1분기 도내 광·제조업 생산 증가

고창의 복분자 브랜드 “베리웰”과 땅콩 브랜드 “웰피넛”으로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세요.

고창 복분자, 땅콩 건강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www.berrywell.co.kr
다양한 제품을 만나 보세요

복분자, 땅콩 선물세트 주문 전화
1544-1589

선운산농협 조합원,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창읍 석정리 727 TEL: 063-563-7255 **웰파크 지점**

최고의 품질, 친절한 서비스
선운산농협 직점 운영

고창 한우 명품관
건강한 한우 명품관 (식당 136석 / 연회장 116석)

농협은행 / 하나로마트(140평)

NH 선운산농협

본점 -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330
복분자가공사업소 - 전북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403-14